

# ‘꿀잼도시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조성 속도낸다

## 쌍암공원에 놀이·교육 테마파크 9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추진 국비 확보 활동 돌입

‘꿀잼 도시, 펀(Fun) 시티’ 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칭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가칭)광주 EBS 캐릭터 랜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안)가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국비확보 활동 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조성 사업은 광주시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96억원을 들여 광산구 쌍암공원 일원에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 펭귄 ‘뽀수’, 뽀뽀뽀 ‘뽀로로’, 방귀대장 ‘뽀뽀이’, 어린이의 영원한 히어로 ‘변개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EBS 캐릭터들을 활용한 놀이·교육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캐릭터 랜드에선 EBS가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22개 캐릭터와 광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

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등을 선보이게 된다. 시설 내부에는 가상·증강 현실(VR·AR),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봇, 미디어아트 등 체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캐릭터 놀이동산, 빛 아트 호수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광주시는 어린이 교육을 접목한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광주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광주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과제(안)가 원안 통과됨에 따라 5000만원을 투입해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를 선정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한다. 기본계획 용역은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조성 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EBS 캐릭터 융·복합을 통한 마케팅 전략사업 발굴, 캐릭터 랜드 조성 및 개발을 위한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거버넌스형 사업 추진체계 제시, 투자 효과분석, 재정투자심사 자료작성 지원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기본계획 용역 분석자료와 제안 사업안을 활용해 ‘광주 EBS 캐릭터 랜드’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이달부터 국비확보 활동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영구 광주시 문화산업과장은 “광주 EBS캐릭터 랜드 조성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EBS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인지도 높은 캐릭터를 광주시의 우수 캐릭터와 융·복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문화콘텐츠 경쟁력에 기반한 광주 도시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가 민주화 성지임을 투표로 보여달라”

### 이용섭 시장 투표 독려 “선관위 투표관리 협조를”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임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7일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선거일인 9월 한 분도 빠짐 없이 꼭 투표해 달라”며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천사의 역할이지만, 현실 정치는 온갖



야합과 반칙으로 착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다”며 “천사의 정치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옳고 그름을 심판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공직자들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에 발생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해 시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잠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일반 유권자들이 감염 위험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 투표소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315대 대상...8~31일 접수 경유차 폐차 후 구입 200만원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8월부터 31일까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6억 3000만원 규모로 315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

차를 폐차한 후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2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31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청기간 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일괄 접수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인터넷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면 되고, 등기우편은

‘(우)61945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9층 대기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내려받거나 광주시청 1층 안내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4월 중 보조금 지원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대기보전과로 제출해야 한다. 나혜전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경유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해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28억 역대 최대

### 조기폐차 등 2만6177대

전남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6177대의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528억

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조기폐차 2만2233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225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1246대 등 6개 사업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은 시군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영업용차량 등은 최대 600만원), 3.5t 이상의 경우 최대 440만~3000만원, 덤프트럭 등 3종은 최대 4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승용차량(5인승 이하) 폐차 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외국투자기업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광양시에 위치한 외국투자유치 기업 ㈜SNNC를 방문, 업체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시찰하며 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 전남도, 6천억 이차전지 사업 투자 유치

### 포스코케미칼, 광양만권에 전구체 생산공장 2026년 구축

전라남도도와 ㈜포스코케미칼이 7일 광양만권에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케미칼은 광양지역 산단 약 6만평 부지에 연간 10만 규모의 전구체 생산 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완비한다. 14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차전지의 용량과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혼합한 물질이다. 전구체 1kg에 리튬 0.5kg을 더하면 양극재 1kg이 만들어진다. 현재 포스코케미칼은 광양 울촌산단에 전기차 100만 대에 공급할 9만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전구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60%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전남도가 독심있게 추진한

광양만권 중심의 생산 및 실증·연구지원 등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더해, 전남이 이차전지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준(㈜포스코케미칼 대표)은 “광양만권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산업의 적지로 판단돼 양극재에 이어 대규모 전구체 사업에 투자하게 됐다”며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1522-9341